

학회의 구조조정



지난 98년의 IMF를 지난 이후 우리 사회는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세계는 21 세기에 접어들면서 산업사회로부터 지식기반정보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에 학회도 새로운 변화를 꾀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대한전기학회가 1947년 100명의 회원으로 처음 출발한 이후 50여년동안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임원들의 노력으로 지금은 10,000여명의 회원을 갖는 대학회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본전기학회의 1/3 수준, IEEE의 1/100에 불과하며 특히 활동회원만을 고려하면 이는 일본전기학회의 거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그동안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전기공학의 관련 인력 배출에 비해볼 때 만족할 만한 수준은 되지 못하다.

학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회원과 재정이라 할 수 있다. 학회가 항구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는 회원(특별회원 포함)수를 증가시켜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한편으로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학회의 구조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측면을 만족할 수 있는 학회의 구조가 무엇일까?

산업의 발달은 새로운 학문분야를 창조해 낼 뿐만 아니라 기존의 분야의 발전 혹은 쇠퇴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분야의 변화에 따라 학회의 구조가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본부학회 중심의 학회 구조로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유기적으로 움직이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1998년에 설치 운영되었던 장기발전위원회에서 연구되어오던 부문회가 분야별로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에 부응하는 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된다.

미국의 IEEE의 경우는 40여개의 Society로 나누어져 활동하고 있으며 일본 전기학회도 5개의 부문회로 나누어져 있다. 영국의 IEE도 Group 으로 나누어져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학회가 과연 부문회로 나누어 활동할 만한 규모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학회도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 학회나 마찬가지로 전기공학의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본부학회에서 모두 대처하기에는 분야가 너무 넓은 점도 부문회로 나누어 활동해야 할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물론 부문회를 몇 개로 나누어야 할 것이며 어떻게 나누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많은 논란이 있을수 있는 문제이다. 우리 학회의 경우 각 부문별로 활동회원이 5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적절한 규모라 생각하고 분야를 나누어 볼 때 4개 부문이 합리적인 선이 아닌가 생각된다.

학회의 발전은 회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의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를 위하여는 학회가 수행하는 사업들에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를 통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발전에 직 간접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학회가 현재 꾸준히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들은 하계학술대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규모의 학술대회, workshop 그리고 세미나 개최와 학회지, 논문집을 비롯한 관련 전문서적들에 대한 발간 사업일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의 내용들은 분야에 따라 관심이 다르고 변화에 따라 대처해 가는 방향도 달라질 수밖에



총무이사 · 허 옥 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사업들은 부문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맞추어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때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8월 중순에 중국전공기술학회(CES)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CES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와 학회의 구성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하였다. 우리의 학회는 학교와 연구소에 있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학문적인 내용 즉 학술대회, 논문집 발간 등이 학회활동의 중심 축인 반면에 중국의 학회는 기업을 중심으로 대외무역, 표준화, 재교육과 전시회 등에 그 활동

의 중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점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활동에 참고로 해야할 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의 잠재적인 회원 대상자 중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인원이 5%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의 평균 회원 가입 년수가 3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많은 전기 엔지니어들의 관심분야와 학회가 추구하는 분야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잠재적인 전기엔지니어인 대학의 전기관련학과 졸업생들 중 상당수가 기업에 취업하여 이 분야의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이 학회에 회원으로 활동하려는 생각은 별로 가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필요에 의하여 학회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들도 그 활동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학회가 너무 학문적인 면에 편중되어 업무내용이 학문적인 내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전기엔지니어들이 학회를 떠나거나 아예 가입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기업에 있는 전기엔지니어들이 학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예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면서도 준비와 실행에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세미나 또는 workshop 전기 관련 새로운 제품의 소개를 위한 전시회 개최 등의 행사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본부학회 또는 부문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학회의 구조 변화를 통하여 본부학회와 부문회가 역할 분담을 하고 학회와 기업간 협조 체제가 완성되면 많은 기업들이 학회에 참여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학회의 새로운 좋은 프로그램 개발로 학회가 전기관련 정보 인프라의 서버역할을 할 수 있을 때 학회 발전 뿐만 아니라 전기계의 발전에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처방에 덧붙여 공간확보나 전임 직원의 확보 등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회원 모두의 협조속에서 꾸준히 그리고 서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이 학회의 해체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가질수 있으나 이는 학회의 전통과 매년 하계학술대회 때 보여주는 회원들의 저력을 볼 때 이러한 염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전기학회가 회원들이 찾는 학회 또는 회원들이 적극 활동하는 학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노력 합시다. ♣